

국어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

박영호(심프)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모를 대할 때 실전 '모의고사'처럼 대하지 말고 '**실전 모의고사**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떻게 수능 당일날 80분 동안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지**'에 대한 훈련에 있습니다.

종종 실모를 풀고 그 문제를 이해가 될 때까지 고민하거나 지문을 열심히 분석하면서 이해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이용하지 마세요.** 실전 모의고사는 내 뇌지컬을 향상시키고 독서 능력이나 문학 감상 능력 등 근본적인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뇌지컬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 실모는 고득점을 위해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콘텐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글은 실모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일 뿐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실모를 꼭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본인의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왕 사용할 거 제대로 사용하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0. 등급 무관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 및 기본 태도

지문 하나를 놓고 푸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80분 안에 45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강한 파트에는 타이트한 시간 배분을, 내가 약한 파트에는 상대적으로 널널한 시간 배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잘하는 파트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약한 파트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내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시간 배분 및 실전 연습으로 들어간다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나의 실력을 판단하냐? **6, 9월 성적과 오답률**을 참고하세요.

“아니 저는 시간 안 재고 풀면 다 잘 풀어요”

“아니 저는 똑같이 10분 재고 풀어도 그냥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 갭이 너무 커요”

“아니 저는 막상 다시보면 답지 안 보고도 쉽게 다시 다 고쳐요”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제대로 못 풀면 약한 거예요. 6월과 9월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낮은 파트가 나의 강점이고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파트가 약한 파트입니다. 단, 오답률이 들쭉날쭉했다면 보통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강점과 약점의 범주는 단순히 화작·언매/독서/문학의 포괄적인 범주가 아닙니다. 현대시/고전시가/주제 통합형/인문 등 **지문 한 세트**를 기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문법은 단원별로 나눠주시고요. 자가 진단을 하고 내 강점과 약점을 모두 정해 놓으세요. 풀이 순서도 나름대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택 - 문학 - 독서일 텐데 이 역시 내 상황에 맞게 순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수험생때 과학/기술 지문에만 유독 자신이 없어서 그것만 빼고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풀이 순서도 정했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잘 하던 파트에서 유독 막힌다면 멘탈이 쉽게 흔들리겠죠.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구체화 해주세요. 저는 화작문이나 문학에서 막힌 경험은 없기 때문에 독서만 세분화해두었습니다. 기본 세팅은 과학/기술 지문만 빼놓고 순서대로 풀기였습니다. 이후 지문을 2개만 빼놓는 경우, 3개 다 빼두는 경우를 일일이 고려했어요. 이에 따라서 타임 테이블도 모두 다르게 정해두었고요. 1개를 빼놓으면 9시 45분까지, 2개를 빼놓으면 9시 35분까지, 3개를 모두 빼놓는다면 9시 27분까지 남은 문제를 다 풀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물론 각 지문당 몇 분안에 푼다는 행동 양식도 모두 정해두었고요.

이런 식으로 모두 상황을 구체화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한 문제에 2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실제 수능장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살면서 막혀본 적 없는 화작에서 막히기도 하고, 굉장히 자신 있던 인문 지문에서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에 세워둔 타임 테이블과 2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그 태도를 통해 무사히 시간 관리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분 제한은 굳이 안 지키셔도 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실전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평가원 시험지’를 기준으로 제대로 된 타임 테이블**을 짜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실력을 바탕으로 수능장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모두 생각해주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부터는 1등급~4등급의 성적대를 기준으로 각 성적대의 학생들이 어떻게 실모를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고정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실모를 활용하는 목적이나, 방법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대에 맞는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고정 100이다. 그럼 읽지 마세요. 저에게 조언을 받을 실력은 훨씬 넘어서는 분입니다.

1. 1등급

1등급도 1등급 나름이죠.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 사설 포함 고정 1등급

- 최대 주 3회, 10월 중순 전까지는 1일 1실모 가능
- 추천 횟수 : 주 2~3회
- 오답 방식 : 틀린 문제만 가볍게 체크하기
- 유의점 : 애매한 문학 선지에 물들지 않기, 지엽적인 문법 개념 헛갈리지 않기

글 자체를 잘 읽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언어적 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빈도가 높아도 괜찮습니다. 후천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학생들은 ‘평가원의 글읽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평가원과 묘하게 다른 서술 방식에 물들게 되면 수능 날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문학과 문법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모에서 출제되는 문학 문제가 평가원보다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하다 싶으면 너무 쉽거나 난이도가 조금 있으면 묘하게 핀트가 어긋난 느낌으로 까다로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이런 문제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위험합니다.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감상 능력이나 선지 판단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폭이지만 점수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실모에서는 문법 개념을 까다롭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문법 자체가 학문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선에서의 학교 문법만 잘 공부해두시면 됩니다. 괜히 어려운 문법 문제 오답하면서 지엽적인 개념들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세줄 요약

1. 뭘 풀어도 잘 푸니까 걱정말고 많이 풀어도 된다.
2. 대신 문학은 애매한 문제에 나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3. 문법도 마찬가지로 지엽적이라고 판단되는 문제는 넘기자.

1-2. 평가원 한정 고정 1등급

- 최대 주 2회
- 추천 횟수 : 주 1회
- 오답 방식 : 독서에서 틀린 문제만 가볍게 체크하기
- 유의점 : 애매한 문학 선지에 물들지 않기, 지엽적인 문법 개념 헛갈리지 않기, 과한 독서 3점 문제에 몰두하지 않기, 디테일한 화자 선지 유의하기

실모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성적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평가원식 읽기와 감상에 최적화된 인간입니다. 특히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실모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점수 등락 폭이 클 때는 독서 혹은 문학에서 오답률이 크게 작용하는데 골고루 틀리기 보다는 독서를 틀리는 날에는 독서만, 문학을 틀리는 날에는 문학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만의 글 읽기 방법과 문제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지문이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왕창 틀려버려요.

이 성적대의 분들은 스스로 실모의 문제를 판단 합니다. 문제를 거르면 대학도 나를 거른다? 실모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든 문제는 오답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납득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때까지 쌓아왔던 글 읽기 방식이나 문제 풀이에 대한 능력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럼 오답을 하지 말고 버려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별로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왜 별로인지' 스스로 생각하세요. 문제 퀄리티를 평가하는 게 건방지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가 틀렸으니 아무튼 별로야!'라는 식의 태도는 건방진 것이 맞습니다만, '이 문제가 왜 별로이고 평가원이라면 이렇게 출제했을 것이다'와 같이 나만의 기준을 잡고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비방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분석하세요. 단, 문제에 나를 맞추지 말고 문제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세요. 그 과정에서 이 지문의 상위 호환이 되는 평가원 지문을 꼽아서 같이 공부해보세요. 전 영역 상관없습니다. 다만 문법은 스킵해도 좋습니다. 지엽적인 개념을 연구하려다 보면 괜히 머리만 아파집니다.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학교 문법의 선을 기준으로 잡고 공부하신다면 평가원 문법 문제는 무리 없이 충분히 잘 맞힐 수 있습니다.

세줄 요약

1. 실모를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납득하지 말자.
2. 대신 '왜 애매한지'를 꼭 분석하자. 그 과정에서 평가원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복습할 수 있다.
3. 역시나 문법은 스킵해도 된다. 문법은 기본 개념 + 기출 반복이 핵심이다.

1-3. 6평 2등급 이하에서 올라온 1등급

- 최대 주 1회
- 오답 방식 : 독서 틀린 문제만 가볍게 체크하기
- 추천 횟수 : 10월 한 달에만 주 1회 or 0회
- 유의점 : 이때까지 쌓아온 풀이 태도 잃지 않기

솔직히 실모를 굳이 풀어야 할까 싶은 성적대입니다. 아예 실모를 건들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완성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야 상위권으로 진입해서 제대로 된 풀이 태도를 갖추어 가는 중인데 괜히 실전 모의고사에 영향을 받아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태도를 나만의 스타일로 굳히는 데에 방해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 기출을 보는 눈도 생겼고 어느 정도 좋은 문제인지 안 좋은 문제인지 평가도 가능한 성적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스타일이 체화되지 않았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성적대입니다. 계속 기출을 풀면서 나만의 독서 태도를 유지하는 방향이 가장 최선입니다.

실전 연습은 평가원 기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출을 풀 때 제한시간을 5~10분 정도 타이트하게, 100점을 목표로 모든 선지를 깔끔하게 풀어 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보세요. 여러 번 봤던 지문이니 당연히 다 맞아야 한다는 자기 암시는 덤이죠. 이렇게 공부해보시면 꽤나 만만찮은 중압감이 몰려올 겁니다. 정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싶으시다면 10월 한 달에만 잠깐 주 1회 실전 양식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시도해보세요. 이때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딱 독서 파트만, 왜 틀렸는지 답지를 참고하면서 간단히 살펴보세요. 오로지 '실전' 그 자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줄 요약

1. 굳이 풀어야 할까?
2. 정 풀고 싶으면 10월 한 달 동안만 딱 주 1회 분량으로.
3. 오답도 최대한 간단히. 기출을 많이 보자.

2. 2등급

2등급은 목표에 따라 나누어보겠습니다.

2-1 안정적인 1등급으로의 도약을 원하는 2등급

- 최대 주 1회
- 오답 방식 : 독서 틀린 문제만 가볍게 체크하기
- 추천 횟수 : 10월 한 달에만 주 1회 or 0회
- 유의점 : 이때까지 쌓아온 풀이 태도 잃지 않기, 사고 과정 피드백하기

공부 방식 자체는 올라온 1등급과 비슷합니다. 다만 공부 목적이나 이유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아직까지 목표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성적대입니다. 즉, 기본적인 독해 태도가 부족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정도 성적대는 보통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거나 80분 동안 집중을 잘 못하거나 그런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봐도 **명확한 약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말 드물게 골고루 1개씩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기출만 보세요. 2% 부족한 그 구멍을 최대한 빠르게 메꾸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2등급이라면, 문제가 없는 파트도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해야 하니 꾸준히 공부는 해주시되 **약점 공략을 중심으로 기출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실모로 메꿀만한 공백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뇌지컬 자체를 올리고 나만의 독해 태도를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되도록 기출을 계속 뜯어주셔야 합니다. 실전 연습도 올라온 1등급이랑 마찬가지로 기출을 풀 때 제한시간을 5~10분 정도 타이트하게, 100점을 목표로 모든 선지를 깔끔하게 풀어 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간 배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간을 굳이 줄이지 않아도 뻑뻑하실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실전 양식 태도를 완성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실모는? 마찬가지로 10월 한 달 동안만 주 1회 분량으로 풀어보세요. 단, 오답은 독서 파트만 해설지 참고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실전 양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피드백하시면 됩니다. 혹은 현장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강 중인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의 풀이를 참고해보세요. 강의에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하고 어떤 점을 걸러야 할지 정리를 해주니 실모를 좀 더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필수는 아닙니다.

세줄 요약

1. 굳이 풀어야 할까?
2. 정 풀고 싶으면 10월 한 달 동안만 딱 주 1회 분량으로.
3. 오답은 간단히, 실전 양식 피드백을 중심으로. 기출을 많이 보자.

2-2 안정적인 2등급을 주 목표로 최대 1등급 컷을 노리는 2등급

- 최대 주 2회
- 오답 방식 : 영역 무관 틀린 문제만 가볍게 오답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피드백하기
- 추천 횟수 : 주 1~2회
- 유의점 : 기출 소홀히 하지 않기

실전 모의고사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만한 성적대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큰 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실수를 줄이고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적을 얻어내기 위한 공부를 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대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도 쌓여있고 목표와 현재 성적의 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분들이죠. 그리고 역시나 약점도 명확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실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푼 직후 바로 채점을 하세요. 채점한 후에 틀린 문제를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답을 골랐는지 체크해보세요. 찍으면 찍었다고 표시해두시고요. 그렇게 내가 틀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하나 둘 정리해나가다 보면 대충 그림이 보일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틀린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고과정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고 과정을 바로잡을 땐 기출로 공부하셔야 해요.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면서 비슷한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정확히 풀어야 할지 그런 점들까지 체크해보세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그래요. 개념을 외우려 들기보다는, 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으로 오답을 골랐는지 그 풀이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유의할 점은, **반드시 기출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공부하려면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해요. 대신 기출도 하루에 한 세트씩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실모랑 똑같은 방식으로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어떻게 고칠지는 기출로 하시는 거예요. 지문을 분석하면서 내가 놓친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실전도 같이 고라하는 겁니다.

세줄 요약

1. 문제 풀이보다는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피드백하기
2. 하지만 기출은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
3. 내가 실전에서 자주하는 잘못된 사고과정을 정리하고 그걸 기출 분석으로 메꿔보자.

3. 3등급

1등급 이상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3등급은 실모를 절대 보지 마세요. 따라서 '3등급 안정을 목표로 2등급 컷까지 노리는 학생'에 한해 설명하겠습니다.

- 최대 주 2회
- 오답 방식 : 영역 무관 틀린 문제만 가볍게 오답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읽었는지'를 중심으로 피드백하기
- 추천 횟수 : 주 2회
- 유의점 : 기출 소홀히 하지 않기, 항상 내가 배운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안정적인 2등급을 노리는 학생과 루틴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베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텍스트를 접한다는 의미 자체가 꽤 큼니다. 여러분들이 3등급이라면 아직까지 기출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더 이상 기출에서 무언가를 뽑아내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모를 통해서 낯선 텍스트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출 역시나 덜 본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는 해주셔야 해요. 기출 문제도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따라가는 강사가 있다면 문제를 풀 때 그 강사의 독해 방식을 체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글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읽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한 후에 문제를 명확히 뚫어낼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따라가는 강사가 없다면 어떻게든 잘 읽어보려고 노력하세요.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사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독서에서요. 문학은 애매한 점은 집어치우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에만 반응하세요. 그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막 읽는 습관을 버리기 힘들실 겁니다. 그걸 계속 의식하셔야 해요. 억지로라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실모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최대한' 들이세요. 그렇게 한다면 소폭의 성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단, 문법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오답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시나 새로운 문법 문제에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풀어보세요.

세줄 요약

1. 사고 과정을 피드백하는 건 물론, 내가 따라가는 강사의 스타일을 체화하려고 노력하자.
2. 따라가는 강사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든 멍때리면서만 읽지 말자.
3. 기출도 낯설다.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

4. 4등급

마찬가지로 4등급 유지 혹은 3등급 컷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한해 설명하겠습니다.

- 최대 주 1회
- 오답 방식 : 틀린 문제는 무조건 오답하기. 답지는 적극적으로 활용
- 추천 횟수 : 주 1회 or 0회
- 유의점 : 80분 집중해서 풀기

사실 실모의 의미가 크게 없는 성적대입니다. 굳이 안 푸셔도 돼요.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가 적은 성적대입니다. 기출이든 실모든 주구장창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더라도 무식하게 많이만 하면 3등급까지는 올라갑니다. 실모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본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겁니다. 아마 4등급 학생들의 대부분은 80분 동안 모든 집중력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일 거예요. 집중력부터 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 용도로 실모를 사용하세요. 실전 양식도 그 다음입니다.

기출을 풀 때에도 45문제 세트로 풀어보세요. 작년 이전의 기출은 화작 40, 언매 35문제이겠지요. 최소 60분은 집중을 하셔야 하는 거죠. 실모를 풀면서도 멍때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정신줄을 잡아주세요. 첫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은 개념 강의를 복습하세요. 거기서 알려주는 방법론을 다시 익히셔야 합니다. 최소 3할이라도 얻어가셔야 해요. 내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해 태도를 얻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실모와 기출에 적용하면서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줄 요약

1. 굳이 풀어야 할까?
2. 정말 풀고 싶다면 80분 동안 집중하는 걸 목표로.
3. 기출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풀어보자.